

맞춤형 특허 전략으로 창업초기기업 경쟁력 업! 특허청, 지식재산(IP) 기반 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IP 나래 프로그램’ 우수 지원기업인 (주)휴로틱스 방문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0. 30.(수) 16시 30분 착용형 로봇 제조 기업인 (주)휴로틱스(서울시 동작구)를 방문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허청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IP 나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실무 교육 등도 제공한다. 이 사업의 수혜 기업(’23년 사업 기준 758개)들은 지난해 총 매출이 전년대비 14.4%, 고용이 20.7% 증가하였고, 총 758개 기업 중 419개 기업이 투자 등으로 총 1,969억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휴로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개인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착용형 로봇 제조 기업으로, 2022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특허 출원 등 50여 건의 국내외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다. (주)휴로틱스는 하지 근력 재활 및 이동 보조를 위한 착용형 로봇을 주력으로 하며,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레저용 골프 슈트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제품군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CES 2024에 출품하여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Pre-A 단계에서 35억 원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투자금을 확보하고 선발주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자산을 통해 세계적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기업 현장방문 계획 및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종석 (042-481-8621)
	지역산업재산과	담당자	서기관	이선희 (042-481-8663)

□ 행사 개요

- **(목적)** IP 기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일시·장소)** '24. 10. 30(수) 16:30~17:30, (주)휴로틱스(서울 동작구)

< (주)휴로틱스 기업개요 >

- **업종** : 산업용 로봇 제조업(편조 의복, 봉제 의복, 웨어러블 로봇)
- **규모** : (매출) 약 62백만원, (종업원) 16명, (지재권) 국내외 54건
- **지원** : 기업이 보유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스포츠 테크놀로지 분야로 다각화하기 위한 IP기술·경영 컨설팅을 지원 → 골프 비거리 증대 및 자세 교정 기능을 보완한 스포츠 트레이닝 로봇 기술에 대한 핵심 IP확보 지원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지역산업재산과장 등
- **(기업 관계자)** 이기욱 대표이사, 김진희 운영이사 등
- **(진흥회·지역센터)** 발명진흥회 경영관리본부장, 지역지식재산실장, 서울지식재산센터 센터장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제품 시연	16:30~16:35(5')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6:35~16:45(10')	기업 소개
	16:45~17:00(15')	제품 시연
현장 소통	17:00~17:25('25)	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17:25~17:30('5)	기념촬영

붙임 2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지식재산기반 경영환경 구축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및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예산배정) 국비 35% : 지방비 35% : 자부담 30%(현금 15%+현물 15%)
-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총괄관리) →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집행)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8회) 지원
 - (IP기술 컨설팅) 주력 사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핵심·주변특허 설계, 출원 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고도화
 - (IP경영 컨설팅) 창업기업의 IP 역량을 진단하고 IP 활용 능력과 IP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IP 경영 컨설팅 및 실무 교육

창업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체계 고도화				
IP 기술 전략	①사업 아이템 IP 검증 특허·디자인 정보 분석 ▼ 타 지재권 침해성 진단	②IP 출원 기술 선별 보유 기술 분석·진단 ▼ 오픈&블랙박스화 IP 전략	③고품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우수 특허권리 설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고도화	④IP 융합·확장 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 IP 포트폴리오 확장
	⑤기업 경영 분석·진단 보유 기술·IP 분석, 내·외부 환경 분석 ▼ IP경영 이슈사항 도출	⑥지재권 교육 IP 전략에 관한 맞춤형 교육 ▼ 기업의 지재권 역량 강화	⑦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 기술·경영에 관한 IP 전략 수립 ▼ 기업 현안에 대한 IP솔루션 제공	⑧외부 지원 사업 후속 연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자금, R&D, 사업화 연계 전략 지원

- (기대효과) 창업기업의 IP창출 및 IP기술·경영 전략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경제적 성과 창출에 기여